

## 하천과 물의 중요성

이 학 섭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욕조 안에서 몸에 묻은 비눗물을 씻어 내려는 찰나 갑자기 물줄기가 약해지며 차가운 물만 질질 흐른다. 몸에 비누칠만 잔뜩 해놓고 당황하여 “지금 목욕하니까, 부엌에서 물 쓰지 마!”라고 소리를 질러댄다.

부엌에서 쓰던 수도물이 잠가지면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 보일러가 요란스럽게 돌아간다. 수도관을 돌아온 물이 욕탕 수도물에 도착한 후, 온수와 냉수가 섞인 물줄기가 샤워기에서 쏟아질 때까지 덜덜 떨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비누 거품은 그 상태로 몸에 달라붙어 버린다.

이는 내가 영국 런던에 잠깐 있을 때 경험한 일이다. 런던대 부분의 집에서는 이런 일을 흔히 겪는 일이며,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겪는 물부족 현실이다.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천이다.

크고 작은 하천에서 물이 흘러 더 넓은 하천이 되고 이 하천은 강이라는 거대한 하천을 만든다. 강물을 막아서 정화해 쓰는 게 우리의 식수이고 생활용수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라는 나라마저 겪고 있는 물부족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게 겪지는 않는다. 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하천 덕분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마운 하천을 제대로 아끼고 가꾸며 온전히 잘 보존하고 있는가?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작년에 전남 진도군에서 물을 많이 쓰는 가정에 일종의 경고장을 보내는 <물 아껴쓰기 신호등제>를 운영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주변에서 신선한 제도라고 했다.

진도군은 겨울 가뭄으로 하천의 상수원 저수율이 급감해서 봄이면 심각한 물 부족을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제한급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물 절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신호등 제도를 운영기로 했다는 것이다.

거리의 신호등에서 착안한 이 신호등제는 전달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 5t(30%) 이상 증가한 가구에 빨간색 스티커를, 감소한 가구에 파란색 스티커를 제작, 고지서에 붙여 보내는 제도다.

전남 진도군 같은 이 같은 물 아껴쓰기 노력이 결국 하천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기초 단계이다. 만약 우리가 물을 아껴쓰지 않고 헤풀게 사용하다가 물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린 물을 끌어오기 위해 주변에 있는 하천의 물이란 물은 죄다 끌어다 쓰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웃간, 지방자치단체간 물 싸움을 벌이고야 말 것이다.

그마저도 안 되면 지하수를 마구 퍼쓸텐데 이는 하천 물을 고갈시키는 가장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갈수록 물소비는 증가하지만 물의 과잉소비와 지하수 오염으로 물공급의 확대가 어려워 앞으로 25년 후에는 전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이 물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물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는 소중한 자원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항상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스스로 하천을 잘 가꾸고 사랑하며 물을 낭비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는 검소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찾아 실천해보자.

첫째, 세면시 세면대에 70% 정도의 물을 받아서 쓰고 양치질이나 면도할 때에는 수도꼭지를 꼭 잠근다. 둘째, 식기류 등 음식그릇에 묻은 기름기는 휴지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세척하여 주방용수 사용량을 줄인다. 셋째, 세탁물은 함께 모아서 세탁하고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이자. 세탁물은 내용물에 상관없이 한번에 150l 이상의 물을 소비하며, 합성세제를 많이 쓰면 세탁효과는 떨어지고 수도물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난다. 넷째, 수도꼭지를 자주 점검하여 누수를 없앤

다. 수도꼭지에서 몇 방울씩 떨어지는 하루물량은 55~75l 정도로 3~5년 정도 샤워할 수 있는 물이 낭비된다. 다섯째, 가정생활용수의 50% 정도가 화장실과 목욕탕에서 사용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절수장치를 사용한다. 우선 간단한 절수방법으로 화장실 물탱크에 물주머니, 벽돌, 브레핀 구부리기 등의 방법으로 물 사용량을 줄인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소중한 물을 아끼는 길이다. 다함께 나서보자. 🌍

## 강

박태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들 위에 얹혀진  
강과 사람의 시간

강의 새벽은 순결하다.

미동 없이 흐르는  
새벽 강 앞에서  
자연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무관해 보인다.

바람이 들을 스쳐도  
강은 요동 없이 오롯이  
느리고 유순하게 흘러갈 뿐

이 강과 들의  
지나온 시간과  
나아갈 시간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그저 착잡하고 안쓰러울 뿐이다. 🌍

